

사지 조사와 고려 사원 연구

한 기 문*

- I. 머리말
- II. 사원의 폐사와 정리 추이
- III. 사원사 연구 자료로서 사지의 요건
- IV. 사지 자료와 고려 사원 연구 방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 사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문헌과 관련하여 사지 자료의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신라와 고려시기에 성립된 사원은 자연적 쇠락·민란·외침에 따라 사지로 남게 되지만, 사지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 계기는 조선초 사원전의 속공과 사원의 공적 축소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서 다수 상고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이후 『여지도서』, 『읍지』, 고지도 등에서도 정리되었다. 개인의 유록 등에서 고찰되기는 하였지만, 체계적 정리는 근대시기에 시작되었다.

사지의 사명과 위치, 그리고 존속 시기 등이 확인되어야 사원의 역사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hkm@knu.ac.kr

를 복원할 단초가 된다. 사명을 찾는 방법으로 사지의 비명·기와명 등 금석문과 지지류의 지명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려 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과 잔존 고려 사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사지 자료는 고려사원 자체의 종파별 혹은 유형별 구조와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고려 사원의 분포 편제를 개경사원과 지방 각 행정단위의 읍내 자복사를 중심으로 실증하며, 육로·수로·연안해로 등 교통로에서의 사원의 역할과 구조의 특징을 밝히고, 관방관련 사원의 특징, 고승들의 수행·순례지 등 신앙성을 고양하는 현장의 특징과 사상을 파악하는 데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 주제어

고려 사원, 사지 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속궁, 기와명.

I. 머리말

寺址란 우리말로 ‘절터’이다. 사원의 기능이 중지되고 그 터만 있다는 의미에서, 법률 용어로 ‘廢寺址’라 한다. 『고려사』에는 ‘亡寺’ 혹은 ‘敗亡寺’로 금석문에도 ‘亡寺田’이라는 표현에서 ‘亡寺’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사지로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사지로 통일한다.

사지에는 지표 위의 목조 건축물은 사라졌지만 주초석, 규모가 큰 석조조각이나 석축, 사적비, 고승비, 승탑 등과 기와편, 자기편 등은 남겨진 예가 많다. 지표 하에는 적심, 혹은 매납용 금속공예품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그 절의 운영 당시의 모습 곧 건물 배치, 당시 불교 의식구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다. 사지는 야외 박물관이면서 불교사를 복원하는 종합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사지는 도시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유적이 거의 보존되지 못했다. 교통 요지의 사지는 국토 개발에 따른 도로망, 공단 설립 등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개발이 미치지 못하는 산수가 수려한 곳의 사지 역시 유물 반출과 농지조성 등으로 훼손이 많았다. 사지의 발굴은 유적의 상태에 따라 도출결과가 다양하며, 발굴 비용의 조달도 쉽지 않다.

본고는 사지의 보존과 체계적 연구를¹⁾ 위해, 문헌사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지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사원 역사 자료로서 의의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²⁾ 먼저 전통시기 폐사와 그 정리 추이에 대해 살핀다. 사지의 자료로서 요건에 대해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사지 자료를 통한 고려 사원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고려 사원은 거의 모두 사지로 남았다. 문헌자료도 금석문과 고문서 단편만 남아 있어서 사지 자

1) 사지 보존, 정비 관리, 조사 등의 연구와 실무 토론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사지 보존 정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0 ; 『2011년 사지조사사업 실무 토론회 자료집』, 2011 ; 『사지 소재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한 손상 현황 자료집』, 2014 참조.

2) 중세고고학의 필요성과 역사학과 만남을 강조한 글은 안병우, 「중세고고학의 발전과 고려사 연구」, 『역사비평』 6, 2003 참조. 사지 조사의 고고학적 연구에 대한 개괄적 논고는 양정석, 「사지고고학서설」, 『불교사연구』 4·5, 2004 참조.

료의 중요성은 크다. 사지에 대한 논고와 발굴보고서들을 그 예시로 들어 논증한다.

II. 사원의 폐사와 정리 추이

사원의 건립은 삼국시기 불교가 공인되면서 왕실의 의례를 위해 도성에서 시작하였다. 불교의 대중화가 시작된 통일신라기에는 사원 건립이 지방으로 확산하여 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경주 도심과 지방 사회, 그리고 오악으로 분포하였다. 9세기 중엽부터 선종이 전해지면서 기존의 사원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사원 건립이 나타났다.

고려의 건국으로 개경에 새로운 왕도의 국가의례를 위한 시설로, 각 종단의 중심 사원들이 건립되었다. 지방 사회에도 裨補寺社라는 관념하에 사회 기간 시설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고려 시기에 대략 추산되는 사원 수는 3000여 소에 근접한다.³⁾

사원이 건립된 후 그 관리의 문제나 재해, 자연적 퇴락 등으로 사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는 어느 시대나 통상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집중적으로 사원 기능이 중지되는 경우는 민란과 외침에 따른다.⁴⁾

대규모 사지의 발생은 신라말 초적 등의 약탈과 방화로 많은 사원이 소실되고 복구되지 않은 채 사지로 남기도 한다.⁵⁾ 그러나 고려의 건국과 함께 많은 사원이 성립되면서 신라시기에 폐사된 사원지에 복구되어 사지로 남겨지지 않은 예가 많았다.

하지만 몽골과의 항쟁 기간에는 많은 사원이 훼손되고 다시 복구되지 않은 채 사지로 남겨진 예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李奎報의 글에서 그

3)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참조.

4) 이병희, 「高麗後期 寺院의 亡廢化와 土地問題」,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景仁文化社, 2008.

5) 「봉암사 정진대사비」, 『韓國金石全文』, 382쪽.

참상이 잘 표현되었다.⁶⁾ 또 원 간섭기에는 權門의 사원 지원이 선택적으로 집중되어 호황을 누린 사원이 있는가 하면 퇴락한 사원이 많았다. 더구나 국가 재정이 여러 사원을 관리하는데 미치지 못하자, 불교계에서는 각종단 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교단유지를 위해 정치권력과 유착하려는 현상도 생겨났다.

고려말에는 해안가의 여러 사원들이 왜구의 약탈대상이 되어 폐사로 되는 예가 많았다. 현재 일본에 전해지는 많은 고려불화나 고려범종 등이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선초 폐불 정책에 따른 寺院田의 屬公은 사원이 유지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태종은 242사를 공인하고 나머지 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⁷⁾ 공인되지 못한 사원은 유지 재원인 사원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원을 폐하지는 않았지만 유지할 재원 공급원인 사원전이 없음에 따라 폐사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고려 이래의 많은 사원이 폐사를 면하지 못하였다. 세종은 禪敎 각각 18사 등 모두 36사만 공인 사원으로 인정하여⁸⁾ 다시 대폭 정리하였다. 물론 읍치의 기존 폐망한 자복사를 산수명처 사원으로 대체 지정하거나⁹⁾, 공인 사원의 末寺 형태로 재편성되어 존속한 사원은 다수가 있어서¹⁰⁾ 모두 계량적 사원 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원 수의 축소는 많은 폐사를 남겼다. 세종대 실록 기사에 따르면 사원 수나 승려 수, 그리고 사원전결 수 등에서 고려에 대비하여 1/10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¹¹⁾

명맥을 유지하던 사원도 향촌 사회에 점차 자리 잡아가던 성리학 이념으로 정신세계를 형성한 士族에 의해 侵暴되면서 폐사되는 예가 문집

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 “由是凡所經由 無佛像梵書 悉焚滅之”.

7)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3月 丁巳.

8) 『世宗實錄』 卷24, 世宗 6年 4月 庚戌.

9)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12月 辛巳.

10)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 대불교정책」, 『진단학보』 25·26·27 합집, 1964.

11) 『世宗實錄』, 卷6, 世宗 元年 12月 庚辰, “我國則前既革寺社田民僅存十一”.

이나 사찬 읍지 등에 보인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사원 거주 승에게 역을 부과하거나 과격한 경우 사원의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족이 사원 구역을 산판으로 조성하여 무덤을 쓴 예도 사원 소송문서에 전한다.¹²⁾ 이 경우 거주 승려가 사원을 떠날 수밖에 없고 거주 승이 없는 사원은 퇴락하여 폐사된다.

조선 중기에 발생한 임진왜란은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됨에 따라 많은 사원이 소실되었다. 다른 시설과 문화재도 그러하겠지만 사원의 피해가 가장 심대하였다. 전후 거의 1세기에 걸쳐 복구가 계속되었다. 특히 사원의 경우 현존하는 사원 중에 대부분은 17세기에 중수된 예가 가장 많다.¹³⁾ 임난을 극복하는데 僧兵의 역할이 컸고, 전후 정신적 후유증 치유 시설로서 사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수되면서 사원의 형태가 바뀌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예도 많아 사지로 남겨진 경우도 생긴다. 중수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사원은 사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말의 의병전쟁시에도 폐사된 예가 빈발하였다. 일본군은 산사로 숨어든 의병을 추적하여 폐허로 만든 예가 많았다. 경주 불국사나 석굴암 등에 거주 승려가 없어 사원이 퇴락한 모습을 보였던 때는 바로 이 시기로 추정된다.¹⁴⁾ 상주 천주사 역시 의병전쟁시에 폐사되었다. 금당터에 무덤을 조성하는 일도 겹쳐졌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山寺의 폐사는 많아졌다. 사지에 있는 고승비나 승탑에 총탄 자국이 보이는 것은 전투의 소용돌이 속에 폐사가 발생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미공군기가 금강산 일대를 폭격함으로써 많은 사원이 폐사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에서 사원이 대규모로 성립된 계기와 양상, 그리고 대규모로 폐사가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각 왕조마다 있었던 전란도 사지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신라시기와 고려시기에 대폭 성립된 사원

12) 조희열, 「상주의 불교문화 유적-북장사」, 『상주문화유적-불교문화유적』, 상주문화원, 2000.

13) 이강근, 「17세기 불전의 재건축」, 『미술사학연구』 208, 1995.

14) 조선총독부 편, 『불국사와 석굴암』, 1938.

은 조선초 폐불 정책에 따라 거의 1/10 수준으로 줄어 든 것이 가장 많은 사지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사지의 발생에 따른 당시에는 어떻게 사지 정리를 하였는지에 대해 개략적 추이를 살펴본다. 신라 이래의 사원에 대해서는 고려 시기에 사천대에서 裨補之籍을 정비하여 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¹⁵⁾ 이 비보지적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적이었고 여기에 등재된 사원 중에 당시 폐사된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상주한 고려말 예가 『고려사』에 보인다. 이로 보면 비보지적 문서가 사원 현황과 폐사를 관리하던 문서였음을 알 수 있다.

몽골 침입기 생애 대부분을 보낸 一然은 그의 평생에 걸쳐 저술한 『三國遺事』에 탐상조를 두어¹⁶⁾ 여기에서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불교 문화재와 사지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인용된 근거는 玉龍集, 諸家傳記, 國史, 三寶感通錄, 本國本紀, 僧傳, 刹柱記, 鐘銘, 新羅古傳, 寺中古記, 石塔記 등인데 이를 통해 폐사의 신앙성과 역사성을 밝혔다.

일연은 몽골 침입 이전 운문적과 관련하여 운문사가 잔폐되자 이에 관한 역사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많은 자료를 동원하여 운문사의 내력을 정리하였다. 『三國遺事』 義解 寶壤梨木 조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인용된 자료를 보면 淸道郡司籍, 雲門山禪院長生標塔公文, 郡中古籍裨補記 등이다.

조선초 사원전 속공 정책에 의해 가장 많은 폐사지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조선초 『世宗實錄地理志』의 편찬 기초 자료로서 각도에서 자료의 수집 보고용, 보충용 지리지가 있었는데 남아 있는 것은 『慶尙道地理志』와 『慶尙道續撰地理志』 뿐이다. 『경상도지리지』에는 佛宇, 靈異之跡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으나 대부분 자세히 정리하지 않았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도 佛宇, 院宇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으나 거의 정리된 기사가 없

15) 한기문,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6) 삼국유사 탐상조는 일연이 신성한 답상이 파괴된 참담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찰의 신개창이 시급하다는 것과 답상 공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중요 편목으로 하였다고 한다(문명대,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教美術史觀」, 『강좌미술사』 1, 1988).

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적용되어 거의 생략되었다.

그런데 사지에 대한 정리는 16세기 초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일부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지리지 중에서도 백과전서적 정리 항목을 두어 지방사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원에 대해서는 佛宇條를 두어 많은 사원 자료를 전한다. 이미 폐사된 경우는 고적조에 정리하였다. 물론 古跡條에는 폐사만이 아닌 다른 유적화된 시설에 대한 기록도 있다. 사지의 정리 항목으로서 고적조는 의미가 크다.

여기에 정리된 사지는 16세기 초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집될 무렵에는 사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우조에 정리된 사원 수는 1652개소인데 고적조의 사원 수는 70개소에¹⁷⁾ 불과하다. 경주의 경우 신라시기에 많은 사원이 밀집되었으나 고적조에는 13개소의 사원만 있었다. 18세기 이곳을 기행한 朴琮(1735~1793)이 남긴 기록에는 “경주부의 오륙 리 주변에 많은 불탑이 전야 가운데 여기저기 서 있으니 대개 신라 때의 절터인 것이다. 주민들 말에 이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으나 다 헐어 성 축조에 들어갔으니 지금 남은 것은 1/100 밖에 안된다”라¹⁸⁾ 하였다. 고려시기에 많은 사원이 밀집된 개성부에는 300여개소의 사원이 있었다고¹⁹⁾ 전하지만 고적조 사원은 19개소가 올라 있다. 따라서 고적조 사원 수가 당시 사지의 정리가 전부 망라된 것은 아닐 것이다.

개경에 대한 기행시문으로 徐居正이 서문을 쓰고 蔡壽와 兪好仁이 발문을 남긴 『遊松都錄』이 현존한다. 채수와 유호인은 같은 해 약간 일정을 달리하여 답사하였다. 채수는 연복사 등 9개소 사원을, 유호인은 18개소의 사원을 답사하였다. 1477년 당시의 현황을 보여준다. 이미 폐사된 귀법사나 거의 건물이 1동만 남은 사원, 斷碑가 있는 사원 등의 모습을 전한다.²⁰⁾ 17세기 초 金堉은 『松都志』를 남겨 고적, 사원조에서 사

17) 李炳熙, 「朝鮮時期 寺刹의 數的 推移」, 『歷史教育』 61, 1997 참조.

18) 『鑑洲集』 卷15, 「東京遊錄」.

19) 車天輅, 「五山說林草稿」(『大東野乘』 卷5).

20) 허홍식, 「기행문으로 본 조선 초 개경의 유적화 과정」,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지 현황을 정리하였다. 정조 때 활약한 韓在濂은 개경의 산수, 성곽, 공해, 풍속 등과 함께 권7에 사지를 포함한 사원을 정리하여 『高麗古都徵』으로 편찬하였다. 19세기 초 1830년(순조 30)에는 여러 송도지를 종합 『中京誌』를 편찬하여 사찰조에서 개경 사원 현황을 살폈다.

개경 외의 특정 지역의 사원 현황에 대한 기록도 다수 있다. 17세기 경 權以愼이 쓴 『東京雜記』에는 경주의 사원 현황이 나온다. 丁時翰은 1686년부터 1688년까지 4차 여행 동안 300여 사찰을 탐방하며 『山中日記』를 남겼는데²¹⁾ 당시 사원현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다. 1745년(영조 21)에 승려 聖能이 쓴 『北漢誌』에는 북한산성 내의 여러 사원의 현황이 있다. 1783년(정조 7)에 金魯鎮이 序文을 쓴 『江華府誌』 불우조에는 강화의 폐사를 포함한 사원들이 소개되어 있다. 1846년(헌종 12) 洪敬謀가 편한 『南漢志』에는 인조이후 산성 축조후 성내의 새로 신창된 사원과 이미 있던 사원 그리고 성외의 기존 사원 현황을 상고하면서 사지도 표시하였다. 17세기부터 나온 私撰 읍지 『商山誌』, 『永嘉誌』 등의 지방지에도 佛宇를 정리하면서 폐사된 곳은 ‘금폐’로 표시하였다. 李世澤(1716~1777)은 龍山에 대한 地誌 『龍山誌』에 용수사의 당시 현황을 수록하였다. 특히 최선의 용수사개창기 금석문을 판독·기록하여 현존 탁본을 보완할 수 있다.²²⁾

조선시기 관찬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증수라 할 수 있는 18세기에 편찬된 『輿地圖書』의 각 행정단위 사찰조에는 많은 사원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지로 된 곳에는 ‘今廢’, ‘今無’, ‘今毀’라 하였다. 이 중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에도 중복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18세기 무렵 폐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적 조에도 폐사된 사원이 중복해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전체 1902개소 사원 중 365개소가 금폐 사찰로 정리된다.²³⁾ 이후 18세기 申景濬에 의해 정리된 『伽藍考』에는 영조시의 현존

』, 집문당, 2004.

21) 번역본은 신대현 번역 주석, 『산증일기』, 혜안, 2005 참조.

22) 허홍식, 「『용산지』의 서지와 보충할 과제」, 『경북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참조.

사찰과 사지를 정리하였다. 정조의 문집 『弘齋全書』에 수록된 『梵宇攷』에도 전국 사찰을 행정단위별로 종합하였다. 여기에도 당시 폐사된 사원은 ‘금폐’라 하였다. 19세기에 각 도별로 진행된 『邑誌』 편찬에도 적용된다.

각종 고지도에도 사지를 ‘금폐’라 하였다. 17세기 후반 숙종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東輿備考』에는²⁴⁾ 1300개소의 사원을 소개하고 ‘某某寺古基’ 혹은 ‘古某某寺’라 하여 사지임을 지도상에 표시하였다.²⁵⁾ 18세기 중엽의 사회상을 반영한 『海東地圖』는²⁶⁾ 군현별 사원현황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1872년에 제작된 『郡縣邑地圖』는²⁷⁾ 450여 장의 각 행정단위마다 채색 회화식 지도에 폐사된 사원을 ‘금폐’라 하여 사지임을 밝혔다.

20세기 초에 활동한 李能和는 『朝鮮佛教通史』에서 각 문헌에 보이는 불교 관계 자료를 정리하였다. 寺庵, 塔像及件名細目 항목을 편성한 중에 사지를 일부 다루었다. 權相老는 각종 연대기의 기사와 사적기, 문집, 각종 지리지의 자료를 섭렵하여 『韓國寺刹全書』로 만들었다.²⁸⁾ 사원의 연혁은 물론 폐사된 사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시기 1911년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에서 각 도별로 사찰관련 금석문, 고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朝鮮寺刹史料』 上·下로 편찬하였다.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는 각 행정단위의 봉수, 성지, 불상, 고분, 지식, 석당 등과 함께 사지도 조사하여 간략한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 高裕燮은 개인적으로 송도의 사원지를 조사하여 궁궐, 관청 유적 등과 함께 정리하였는데, 1946년에 그의 유

23) 이병희, 앞의 논문, 1997.

24) 慶北大學校 出版部, 『東輿備考』, 1998. 동여비고의 제작 시기를 숙종 8년(1682)으로 추정한 연구는 이상태, 「동여비고의 역사지리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 『영남학』 2, 2002 참조.

25) 남권희, 「『東輿備考』의 寺刹기록 연구」, 『嶺南學』 2, 1998.

26) 서울대학교 奎章閣, 『海東地圖』, 1995.

27) 서울대학교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1999.

28)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上·下,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저 『松都의 古蹟』이 편찬되었다.

1970년대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은 『文化遺蹟總覽』에서 전국 시군별로 문화유적을 정리하면서 사지 역시 파악하였다. 1960년부터 1968년까지 고고미술동인회에서는 사지, 탑, 불상 등을 현지답사하면서 많은 사지를 연구·보고하였다.²⁹⁾ 정영호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연차적으로 槐山, 善山, 尙州地區의 고적을 조사·보고하였는데 사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³⁰⁾ 1974년, 1977년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경주 일대의 사지를 정리한 『新羅의 廢寺』 I, II를 간행한 바 있다.³¹⁾ 秦弘燮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7차에 걸쳐 경북 북부, 강원 일부, 충북 일부의 사원유적을 조사한 『新羅北岳太白山遺蹟調查報告』를 제출하였다. 1992년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에서 지방 8지역의 사지들을 조사·보고하였다.³²⁾ 1997년 齋藤忠은 지역별로 각 사원의 금석문 사료를 정리하고, 『고려사』·『고려사절요』 사원 자료를 편년적으로 정리하여 『高麗寺院史料集成』을 펴냈다.³³⁾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사원지』를 편찬하였다.³⁴⁾ 2000년대에 각 행정단위마다 『文化遺蹟地圖』를 만들면서 그 사지의 위치와 간단한 현황을 부록하여 정리한 바 있다. 2010년부터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사지를 각 도 단위별로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韓國의 寺址』로 간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사지 발생에 따른 정리가 지속 되어 오늘에 이른 추이를 살폈다. 이로써 사지가 사원 연구 자료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문적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사원을 비보지적에 등재하여 폐사되면 복구하려 하였고, 일연은 개인적으로 폐사에 대한 역사성·신앙성을 살폈다. 조선초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이후는 『여지도』

29)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 上·下, 백산문화, 1979.

30) 『槐山地區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出版部, 1967; 『善山地區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出版部, 1968; 『尙州地區古蹟調查報告書』, 檀國大出版部, 1969.

31) 한국불교연구원, 『新羅의 廢寺 I』, 一志社, 1974; 『新羅의 廢寺 II』, 一志社, 1977.

32)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廢寺址調查報告』, 1992.

33) 齋藤忠 編著, 『高麗寺院史料集成』, 大正大學綜合佛教研究所, 東京 第一書房, 1997.

3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佛教寺院址』 上·下, 1997·1998.

서』, 『읍지』 등에서 정리하였다. 개인적으로 개경일대의 사원을 답사하거나 전국사찰을 행정단위별로 종합하기도 하였다. 일제시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고고미술동인회 단체, 혹은 권상노, 고유섭, 정영호, 진홍섭 등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있었다. 근래에는 정부 주도로 사지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Ⅲ. 사원사 연구 자료로서 사지의 요건

사지가 확인되면, 불교사 복원을 위한 사지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지는 그 사원의 창건부터 중수, 중건, 폐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그 과정을 그 장소에서 거친다. 시간적으로 멀리는 왕조를 이어 존속하기도 하고, 왕조내에서도 민란, 외침 등 격변기를 거치면서 소실, 중수, 중건, 폐사된다. 그래서 유적과 유물의 층위별 분석을 통해 사지의 변화와 연대를 분석할 수 있는데, 문헌자료의 뒷받침이 있어야 불교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신라시대 사원의 역사를 전하는 寺中古記類들은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역사상 외침이 많았고 불교에서 유교로 이념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事蹟類는 거의 없다. 17세기 이후 中觀鐵面, 정약용 등에 의해 시작된 寺志 간행이 점차 활발해졌다.³⁵⁾ 다만 전등 역사가 긴 송광사의 경우 고문서가 남아³⁶⁾ 그 단편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사지와 문자자료가 가장 합치할 경우는 사지에 세워진 사적비와 고승비, 탑지에 매납된 사리기, 佛腹藏 문서³⁷⁾ 등과 함께 할 때이다. 사지의

35) 許興植, 「寺志의 刊行과 展望」,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참조.

36) 亞細亞文化社 影印, 『曹溪山松廣寺史庫』, 1983; 松廣寺 聖寶博物館,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2004.

37)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2015;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2017.

자료 가치가 더욱 높을 것이다. 창건 배경, 중수의 경위, 창사, 중건의 주체, 비용 조달, 국가에서 추진 과정, 주된 기능과 성격 등을 알 수 있다. 玄化寺碑는 현화사의 창건 배경, 과정, 장엄, 경제규모, 의례 등이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³⁸⁾ 國師·王師의 下山地에 건립되는 고승비는³⁹⁾ 그 사원의 사명과 고승의 일대기, 사찰의 규모나 지원 등을 전한다. 남한강 수계의 찬유의 고달사,⁴⁰⁾ 지종의 거둔사,⁴¹⁾ 충담의 흥법사,⁴²⁾ 해린의 법천사⁴³⁾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혜거의 도봉원,⁴⁴⁾ 양경의 태자사,⁴⁵⁾ 혜심의 월남사,⁴⁶⁾ 일연의 인각사⁴⁷⁾ 등도 하산소로서 지표조사 혹은 발굴되었다. 탑지의 사리기를 통해 탑의 규모는 물론 시주의 주체 등도 알 수 있는데 백제 王興寺 사리기,⁴⁸⁾ 彌勒寺 사리봉안기,⁴⁹⁾ 陵寺 昌

38) 최병헌, 「고려중기 현화사의 창건과 범상종의 융성」,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참조.

39) 고승비에 대한 부분적 탁본집은 17세기 趙涑의 『金石清玩』, 李俔의 『大東金石書』 등이 전한다. 『금석청완』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에 대한 검토는 남동신, 「『金石清玩』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현지조사와 탁본에 의한 활자화된 자료집으로 1918년의 『朝鮮金石總覽』, 1984년 『韓國金石全文』 등에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하산소의 개념과 승탑 및 비의 건립 의의에 대해서는 한기문, 「고려 역대 국사·왕사의 하산소의 존재양상과 그 기능」, 『역사교육논집』 16, 1991 참조. 고려시대 고승비의 성립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참조.

40)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여주군, 『고달사지 IV』, 2016.

41) 한림대학교박물관, 『거둔사지』, 2000.

42) 원주시, 『흥법사지 석물실측 및 지표조사보고서』, 2000 ; 강원문화재연구원, 『원주 흥법사지 문화재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43) 강원문화재연구원, 『원주 법천사Ⅲ』,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美·像 지광국 사탑을 보다』, 2018.

44) 한성백제박물관, 『영국사와 도봉서원』, 2018.

45) 한기문, 「고려초 통진대사 양경의 행적과 태자사의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46) 문화유산연구원, 『월남사 I ~ V』, 2015~2019.

47) 군위군·경북대박물관, 『화산 인각사』, 1993 ; 경상북도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화산 인각사-사역확인 시굴조사보고서』, 1999.

48)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夫餘 王興寺址 出土 舍利器의 意味』, 2008.

49)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3 ;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王銘舍利龕⁵⁰⁾ 등이 있고, 신라 皇龍寺 사리기,⁵¹⁾ 황복사 석탑 금동사리함명,⁵²⁾ 石南寺 비로자나불 사리호,⁵³⁾ 桐華寺 閔哀王 사리기⁵⁴⁾ 등도 사원의 성격과 연대를 알려 준다.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⁵⁵⁾ 청주 龍頭寺 鐵幢記 등은⁵⁶⁾ 고려시기 불국사, 용두사 등의 사원 성격을 보여준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무심천변 제방도로 확장 공사 시에 발견된 400여점의 청동유물에서 ‘思惱寺’명문이 확인되었고,⁵⁷⁾ 『진각국사어록』에서⁵⁸⁾ 혜심의 西原府 사녀사 하안거 때 방문 上堂하여 어록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녀사의 위치와 성격이⁵⁹⁾ 밝혀졌다. 사지와 당대 금석문과 고문서 등 문자자료가 동반되는 예는 많지 않다.

그 외에도 각 문집에 전하는 창건기, 사리기, 중수기와 사지가 일치할 경우 많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몇 예만 들면 다음과 같다. 李奎報의 王輪寺丈六尊像靈驗收拾記와⁶⁰⁾ 왕륜사지, 閔漬의 國淸寺釋迦舍利靈異記와⁶¹⁾ 국청사의 중수 과정, 李穡의 麟角寺無無堂記와⁶²⁾ 인각사의 건물지 분석에⁶³⁾ 활용될 수 있다. 고려 불화 화기나 전적 자료의 간기에서 사원의 위치와 사명 등을 볼 수 있다.⁶⁴⁾

50) 서정록, 『백제금동대향로-고대 동북아의 정신세계를 찾아서』, 학고재, 2001.

51) 국립청주문화재연구소,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2013.

5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신라 금석문 탁본전 돌에 새겨진 신라인의 삶』, 2008, 60~61쪽.

53) 丁元卿, 「永泰2年銘 蠟石製壺」, 『釜山市立博物館 年報』 6, 1983.

54) 황수영, 「新羅閔哀大王石塔記」, 『史學志』 3, 1969.

55) 국립중앙박물관, 『불국사 석가탑 유물2-중수문서』, 2009.

56) 이혜선, 「용두사 칠당기에 보이는 고려초 청주호족」, 『호서문화연구』 14, 1996.

57)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1999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녀사 금속공예』 I·II·III, 2014~2015.

58) 慧諶, 『眞覺國師語錄』(『韓國佛教全書』 6).

59) 김수태, 「고려시대 청주 사녀사의 성격-미륵신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5, 2021.

60) 李奎報, 「王輪寺丈六尊像靈驗收拾記」, 『東國李相國集』 卷25.

61) 閔漬,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東文選』 卷68.

62) 李穡, 「麟角寺無無堂記」, 『牧隱文藁』 卷7.

63) 경북대 박물관·군위군, 『華山麟角寺』, 1993.

64) 홍윤식 편, 『한국불화 화기집』, 가람사연구소, 1995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사지 자체에서의 위와 같은 문자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사지는 그 사명과 중심 연대의 확인이 되어야 자료의 가치가 있게 된다. 문헌자료에서 寺名이 확인되면 그 寺址의 위치확인이 되어야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진다.

전자의 경우는 사지에 많이 남겨진 기와편과 자기편, 석조조각의 상대 연대를 통해 그 사원의 존속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고고미술사적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특히 사지의 고급 청자는 제작 시기, 제작지 등을 통해 사지의 중심 연대와 사격을 밝히는 연구로 진행할 수 있다.⁶⁵⁾ 사명의 경우는 그 지역의 地理志類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사원 관계 자료의 가장 중요한 지리지류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꼽을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는 지역 연혁만을 건조하게 정리하였을 뿐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지역 연혁, 인물, 불우, 고적, 기타 제사 유적, 시문 등 백과사전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역사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원 관계는 불우조와 고적조에 잘 정리되어 있다. 불우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되던 16세기까지 존재한 사원이고, 고적조는 그 이전 폐사된 사원이 정리된 것이다. 이후 사찬읍지, 『여지도서』, 『읍지』 등은 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답습하고 각 지지류의 성립 그 당시의 사실들이 추가될 뿐이다. 사명은 그 사원이 소재한 산명, 고개명 등을 함께 사용하여 同寺異稱의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사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지의 文字瓦[명문와]의 발견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고려시기 사원을 건립하거나 중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건축부재는 바로 기와이다. 그래서 사원 건립지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와 제작시에 그 사원명을 새긴 판틀로 찍어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문자는 대체로 좌우가 바뀌어 돌을새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기와가 있는 사지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곽승훈 편저, 『고려시대 전적자료집성』, 해안, 2021 참조.

65) 대표적으로 고달사지 조사와 월남사지 조사에서 시도되었다. 경기도박물관, 『고달사지Ⅳ』, 2016 ; 문화유산연구원, 『월남사Ⅰ~Ⅴ』, 2015~2019 참조.

곧 그 사명의 위치가 확정될 수 있다.⁶⁶⁾

후자의 경우 문헌자료에서 보이는 사명을 그 위치를 확인하여 逸名寺址의 이름을 확정하는 방법이다.⁶⁷⁾ 사지가 있었던 곳은 후대 사원의 기능이 정지되어도 地名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헌자료의 사명을 지명으로 확인하여 그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지명도 여러 차례 변경되므로 시기적으로 오래된 지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지명은 일제시기에 작성한 地形圖와 舊地名一覽資料를⁶⁸⁾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혹은 고지도상의 지명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형과 가장 가깝게 그려진 근대 지형도가 가장 편하다. 근대지도의 지명과 고려 중기 이규보의 강남시에 보이는 상주 지역 사원의 소재지를 추정할 사례가 있다.⁶⁹⁾

그런데 지명이 확인된 곳이 이미 도심으로 변한 경우 시굴이나 발굴을 통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기와편, 자기편, 혹은 석물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인근 유교건물 부재로 재활용된 석탑재 등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이상에서 사지의 연혁을 알려주는 사적기가 없는 경우 그 사지의 비문, 고승비, 석탑 사리기 등 일차 자료와 함께하면, 사지 자료로서 가치

66) 大坂金太郎, 「慶州に於ける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昭和6年 10月 ; 박흥국, 「안계사지와 포항 연화사지의 銘文瓦」, 『新羅學研究』 3, 1999 ; 박흥국 외,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研究-岬山寺所用瓦考察」, 『靑丘學術論集』 4, 1994 ; 한기문, 「高麗時期 善山 元興寺의 立地와 役割-‘元興寺’ 銘文瓦의 發見-」, 『文化史學』 26, 2006. ‘기비’ 명문와는 조명제, 「고려시대 기비사의 건립과 기능」, 『향도부산』 43, 2021 참조. ‘무심선원’ 명문와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2000 참조. 고려시기 명문와 자료집으로는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체문제』, 집문당, 2004 ; 이남규 외, 『고려시대 역연대 자료집』, 학연문화사, 2015 참조.

67) 李鍾恒, 「傳 仁興寺址 三層石塔 移基에 關한 報告」, 『慶北大論文集-高秉幹博士頌壽紀念論叢』 4, 1960 ; 한기문, 「고려시기 상주(尙州) 봉두사(鳳頭寺)의 위치와 기능」, 『복원사림』 32, 2014.

68) 朝鮮總督府製作『一万分一朝鮮地形圖集成』, 景仁文化社 影印 ;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9) 상주박물관 엮음, 『고려시대의 상주』, 민속원, 2021.

가 높다. 사지의 사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문자와의 발견으로 가능하고, 사명은 알려졌으나 구체적 위치가 밝혀지지 않으면, 지명을 추적하여 그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 사지의 자료 가치는 사명과 위치, 그리고 이에 관한 문헌적 뒷받침에 따른 존속 연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지의 공간적 범위가 개발이나 자연 재해 등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고고미술사적 자료 가치도 더욱 높아진다. 사명을 확인한 사지는 사원의 공간적 분포와 성격 등을 연구할 때 단초 자료가 된다.

IV. 사지 자료와 고려 사원 연구 방향

고려 관련 사서에 사원 관계 정리 항목은 전무하다. 『고려사』 등 연대기와 문집 자료, 금석문에 보이는 편린으로 일면을 살필 뿐이다. 사지 자료는 사원 자료 확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원을 통한 불교사 복원에는 사원의 배치 구조의 특징, 사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록 자료 등이 주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사회 기간 시설로서 지배의 한 축으로서 편제 곧 각 행정단위별 분포, 산천, 교통로와의 관계, 명승지와 관계, 종파별 분포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지 자료가 그것을 해명·실증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일생의례로서 사원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원당, 장지, 기일재 등을 이해하는 공간적 분포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고려시기 특성의 하나는 불교와 사회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사례로 제시한다.

개개 사원의 존속 시기의 역사와 시대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고고학적 층위와 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건물 배치의 구성과 특징은 금석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 신라말 고려 초에 선종 사원을 들 수 있다. 선종 사원지가 다수 부분적으로 발굴된 바 있는데, 고승비가 있는 사지인 경우는 그 비문의 내용을 통해 선종 사원의 배치 성격을 밝힐 수 있다. 선종에서는 선사의 존재가 중시되기 때문에 僧塔과 일대기를 적은 高僧碑가 있고,

초상이 모셔진 影堂으로 추모되었다.⁷⁰⁾ 생전 사원에서 활동 공간은 法堂이⁷¹⁾ 중요한 공간이 되어 여기서 기거하고 대종을 위한 설법도 하며 혹은 입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원지의 고고학적 발굴로 입증할 수 있다. 고승비 자료와 사지의 고고학적 분석으로 선종 사원의 법당이 건물 배치상 중요하고 공간 배치에서 上院 공간의 구성을 증명할 수 있다.⁷²⁾ 고달사지 사원 배치 구성에서 영당지, 승탑, 비, 법당이 상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⁷³⁾ 교종의 유가종 사찰 법천사의 부도전지가 검토되었다.⁷⁴⁾

사원의 구성상 도서 보관시설의 존재와 배치 양상을 알 수 있다. 사원은 法寶 곧 경전을 중시하던 구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라 통일기부터 經樓의 존재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고려 초부터 대장경이 판각되어 그 인본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大藏堂 건물이 사원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고려 중기부터는 대장경 확보와 유지를 위한 의례인 轉藏儀禮가⁷⁵⁾ 확산되어 輪大藏 시설이 있는 곳도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의 문헌적 자료와 사지에서 그 유지를 확인하면서 대장당, 윤대장의 사원 구성상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다.⁷⁶⁾ 사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례는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⁷⁷⁾ 그 실제 사지 조사보고서에서 윤대장의 기초 석물구조가 확인된 바 있다.

70) 고려초 공양, 찬유, 지종 등의 고승비에서 확인된다.

71) 선종 사원의 가람 구성에서 法堂을 비롯한 7堂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윤창화,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민족사, 2017, 224~258쪽 참조.

72) 최연식, 「고려 사원형지안의 복원과 선종사원 공간구성 검토」, 『불교연구』 38, 2013 ; 이승연,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법당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73) 이승연, 「여주 고달사지 전각 구성과 가람 변천」, 『고달사지 IV』, 2016.

74) 조원창, 「법천사 부도전지의 권역성격과 축조기법 특성」, 『고려사지와 건축고고』, 서경문화사, 2016.

75) 韓基汶, 「高麗時代 寺院 轉藏儀禮의 成立과 性格」,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76) 이경미, 「高麗 朝鮮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變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77) 최근 초조대장경판이 보관된 곳으로 지목된 부인사지 조사에서 추정유구 일부가 발굴된 바 있다(불교문화재연구소, 『대구 부인사 I·II(추정경판고지)』, 2013).

사원의 구성상 탑은 초기 사원에서부터 중요 중심시설이었다. 그 형태와 소재, 그리고 배치의 다양성은 사지 조사에서 밝혀질 수 있지만, 어떠한 經典을 바탕으로 造塔되는 지에 대한 사상적 근거에 대한 해명은 탑에 소장된 사리기, 찰주기, 형지기 등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시기별·종파별 조탑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사원의 불지(금당, 탑) 공간과 승지 공간의 경계에 경전의범에 따른 유물 매납의 의미에 대한 논고가 제출되었다.⁷⁸⁾ 탑을 중심으로 유물과 건물지 등의 조사를 통해 사역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사지의 조사를 통해 목탑지를 밝힌 논고가 나왔다.⁸⁰⁾ 고려 석탑에 대한 전반적 검토 논고도 있었다.⁸¹⁾

사원에서 조탑의 중요성과 함께 金堂의 중요성도 또한 점점 증대하여 그 主尊佛에 대한 성격은 그 사원의 종단상의 계열을 알 수 있어 사원 구성 특징을 파악하는 요소가 된다. 銅佛의 경우는 화재에 취약하고 동 자체가 귀금속에 해당하여 사지 현장에 잘 남아 있지 않지만, 石佛과 鐵佛의 경우는 사지 현장에 남아 있는 예가 많다.⁸²⁾ 석불과 철불에는 광배에 시명한 것과 불상에 직접 시명한 것 또는 기타 사리장치의 형식으로 된 것⁸³⁾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지의 원래 소속 종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⁸⁴⁾ 이러한 불상의 명을 소개한 예는 사지의 전모와 함께 검토되지 않은 수가 많다. 사지 조사에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78) 최태선, 「신라 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경전의범과 공간조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안동 조탑리사지』, 2007 ; 예천군·한국문화연구원, 『예천 개심사지』, 2021.

80) 류형균, 「高麗 木塔址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1) 홍대환,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2) 문명대, 「金泉 葛項寺 石佛坐像의 考察」, 『東國史學』 15·16 합집, 1981 ; 최인선, 「한국 철불 연구」,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83)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坐像-智異山 內院寺石佛 探查始末-」, 『考古美術』 168, 1985 ; 김창호·한기문, 「동해시 삼화사 철불 명문의 재검토」, 『강좌 미술사』 12, 1999 ; 김상현, 「삼화사철불과 화엄업 결연대대덕」, 『문화사학』 11·12·13합집, 1999 ; 최연식,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28, 2020 참조.

84) 중앙문화재연구원, 『慶州 甘山寺 法堂址』, 2001.

사지에는 高僧碑가 있는 예가 많다. 그중에는 비의 보존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예도 있고, 파괴되어 殘碑만 남겨나⁸⁵⁾ 귀부와 이수만 있는 예도 있다. 하지만 고승비가 있었던 곳에는 碑殿으로 보호 시설이 있어서 그 부근에서 碑片을 조사하여 비문을 복원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북한산 三川寺址의 碑殿址로 추정되는 곳에서 大智國師碑의 비편이 수습·정리된 바 있다.⁸⁶⁾ 月南寺의 惠諱碑,⁸⁷⁾ 삼척 흥전리 사지의 비편과 귀부도⁸⁸⁾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원래 비가 다른 지역에 비편으로 발견된 예도 있다. 태자사의 통진대사비는 용수사에서 비편으로 발견되었다.⁸⁹⁾ 고승비와 세트를 이루는 승탑연구도⁹⁰⁾ 사지에서 영당 건물지와 함께 조사해야 한다.

사원 전각 배치는 신라시기 평지 가람의 전형성에서 고려시기 다양한 배치로의 변화가 파악되어 있으나,⁹¹⁾ 자세한 변화상 파악은 사지 조사 사례가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중국 사원 전각 배치와 고려 사원 전각 배치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예컨대, 이자연의 甘露寺는 Song 潤州 감로사의 모습대로 하였다고 한다.⁹²⁾

사원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지 내의 법당, 금당의 주존

85) 잔비의 경우 파괴되기 전의 탁본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남동신 책임편집,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0.

86)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1.

87)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考察」, 『震檀學報』 36, 1973 ; 강진군·재단법인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월남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 2014.

88) 강원문화재연구소, 『三陟 興田里寺址 地表調査 및 三層石塔材 實測報告書』, 2003 ; 박찬문,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 소개」, 『목간과 문자』 18, 2017 ; 최연식,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흥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목간과 문자』 20, 2018 참조.

89) 한기문, 앞의 논문, 2020.

90) 승탑에 대한 연구는 소재구,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참조.

91) 김종규, 「신라사찰건축 연구」, 『아시아문화』 12, 1996 ; 김봉열·박종진, 「고려 가람의 구성형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통권26호, 1989 참조.

9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불우 감로사.

불, 탑, 대장당, 진영각, 승탑, 고승비 등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이해는 사지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효율적 접근이 가능하다.

사원이 전국토에 보편화 된 고려시기를 중심으로 사원의 編制를 공간적으로 복원하는데 사지 자료의 중요성은 크다. 개경과 지방 행정단위의 사원 편제를 복원하는데 사지 자료는 절대적이다. 그 이유는 개경은 조선시기에 유적화되어 많은 사원이 그 법당이 끊어지고 사지로 되었으며, 도심의 경우는 그 위에 근대에 이르러 도시화가 진행되어 사지 전모의 파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지 조사와 발굴은 그만큼 새로운 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개경 사지는 고려시기 왕도였기 때문에 여러 자료에서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문헌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고유섭이 이미 『松都의 古蹟』에서 사지의 위치를 추적하고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의 사원이나⁹³⁾ 고구려 수도, 백제의 수도 공주·부여의 경우도⁹⁴⁾ 그러하지만 개경은 都城制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사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⁹⁵⁾ 왕궁내에는 內願堂이 존재하였다.⁹⁶⁾ 內帝釋院과 法雲寺, 法王寺, 內天王寺 등이 알려졌다. 도성내외에는 奉恩寺, 普濟寺, 賢聖寺, 國淸寺, 玄化寺,⁹⁷⁾ 興王寺,⁹⁸⁾ 佛日寺,⁹⁹⁾ 新興寺, 彌勒寺, 開國寺, 外帝釋院 등이 배치되어 각종 국가 의례와 각 종단의 중심 사원의

93) 田中俊明, 「慶州新羅廢寺考-新羅王都研究 豫備的考察-(1), (2), (3)」,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 1988; 黃尙周, 「慶州地域 新羅寺址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진성규·이인철, 『신라의 불교사원-역사 실화 유적 유물-』, 백산자료원, 2001.

1. 황룡사와 도성제를 검토한 양정석, 『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 2004 참조.
94) 張慶浩, 『百濟寺刹建築』, 藝耕産業社, 1991; 조원창, 『백제사지 연구』, 서경문화사, 2013.

95) 김창현,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신서원, 2011.

96) 한기문,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8, 2014.

97) 최병현, 앞의 논문, 1981; 김창현, 「고려 현화사비 분석」, 『목간과 문자』 9, 2012 참조.

98) 황수영, 「高麗 興王寺址의 調査」, 『白性郁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957.

99) 불일사는 저수지가 되어 수몰됨에 따라 1959년 조사되었다. 水谷昌義編譯, 「高麗佛日寺의 調査研究-近年の共和國の研究報告から」, 『朝鮮學報』 113, 1984.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⁰⁰⁾

개경은 방리제가 시행되었는데 현종대 坊名이 정해질 때 사원명에서 유래한 것이 다수 보인다. 특히 북부방에는 法王坊, 興國坊, 慈雲坊, 王輪坊, 舍乃坊, 內天王坊 등이 있다. 사원이 그 방에서 가장 중심된 시설이고 坊市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방제의 운영과 사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지 조사가 필수적이다.¹⁰¹⁾

이외에도 왕실의 조상숭배를 위한 다수의 진전사원이 개경 인근 赤縣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양상을 사지 조사로서 해명할 수 있다. 王陵과 眞殿寺院과의 관계 등의 고찰이 필요하다.¹⁰²⁾ 지방에도 왕실원당이 다수 있었다. 태조진전이 있었던 開泰寺,¹⁰³⁾ 鳳巖寺,¹⁰⁴⁾ 奉業寺¹⁰⁵⁾ 등이었다. 혜종의 진과 소상이 있는 나주 興龍寺,¹⁰⁶⁾ 정종·광종과 모후의 어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충주의 崇善寺 등도¹⁰⁷⁾ 고려 왕실원당이다. 나주는 惠宗의 鄉里이고 충주는 定宗의 향리이다. 향리는 국왕 모후의 출신지를 말한다. 순종·의종·명종의 태장소로 지정된 長壽寺,¹⁰⁸⁾ 龍壽寺,¹⁰⁹⁾ 龍門寺¹¹⁰⁾ 등도 알려졌다. 이들 사원의 특징은 그 사지의 조사로 밝힐 수 있다.

100) 한기문, 「고려전기 수도 개경 사원의 성립과 기능」, 『한국중세사연구』 59, 2019.

101) 신라 왕경내 사원으로 미탄사지가 확인되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미탄사지 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6.

102) 허홍식, 「高麗의 王陵과 眞殿寺院」,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집문당, 2004.

103) 국립부여박물관, 『개태사 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2018.

104) 홍병화·김성우, 「회양산 봉암사 극락전의 연구」, 『건축사연구』 제16권5호(통권54호), 2007.

105) 경기도박물관, 『봉암사』, 2002.

106) 『錦城日記』(『朝鮮學報』 53, 1969), “宣德四年乙酉正月日施行…利安官前判書雲觀使張得修 前朝惠宗塑像及眞影等教是乙 有屋校子良中 陪白留後司大祖一處埋置以軍人八十名乙用良”.

107) 송선사의 신명순성왕후[광종 모후]의 진전지로서 창건 강당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충주시·충청박물관, 『충주 송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108) 『大覺國師文集』 卷17, 「留題江城郡長壽寺」.

109) 崔訥, 「龍壽寺開創記」(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110) 「龍門寺重修記」, 『韓國金石全文』, 872쪽.

그리고 개경 주위에 관인들에 지급된 柴地가 있는 一日程 혹은 二日程의 거리의 범위 안에는 관인들의 願堂이 들어서 있었다. 묘지명에는 빈소, 화장, 기일재 등을 행한 사실과 관련 사원이 언급되는데 시지 내의 사원 분포나 위치 등은 사지를 통해 알 수 있다.¹¹¹⁾ 柴地和 族墳 조성과의 관계 등을 해명할 수 있다.

왕성내 사원지의 발굴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현재 會慶殿과 景靈殿 부근의 건물지 조사에 그치고 있다.¹¹²⁾ 이곳의 사지나 불교 시설이 조사된다면, 내원당의 공간적 구성과 便殿 등의 시설과 배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내원당은 국왕의 불교 지배기구로서, 이를 통해 고려시기에 독특한 국왕 內朝機構의 구성과 운영의 한 측면을 알 수가 있다.

고려의 국가의례 중에서 양 축을 이루는 정월 燃燈會와 중동 八關會의 의례 공간으로서 각기 중시된 奉恩寺와 法王寺의 사지 역시 발굴 조사된 적이 없다. 고유섭은 봉은사의 위치에 대해 추정하였지만, 근대의 여러 시설이 들어서서 자세한 조사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봉은사는 태조의 상이¹¹³⁾ 모셔진 眞殿이 있어 태조 숭배 시설로서도 중시되어 연등회 때 봉은행향을 하던 장소이며 6월 태조 기일제도 열린 곳이다.¹¹⁴⁾ 법왕사는 황성 안에 있고 여러 석등 등의 불교 관련 석물은 언급되지만, 자세한 구조는 드러나지 않아 사지 조사로 밝힐 수 있다. 법왕사도 팔관회 때 반드시 행향하던 곳으로 이곳으로 향한 이유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고려전기 국왕의 대외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에 국왕 誕節道場이 행하여진 外帝釋院도 그 사지가 자세히 조사된 바 없다. 공신들의 추모가 있

111) 묘지명에 보이는 고려 지배층의 매장지에 대해서는 金龍善, 「高麗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考察」, 『東亞研究』 17, 1989 참조. 과주 서곡리의 권준의 원찰 자묘사와 그의 벽화묘에 대한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과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1993 참조.

112) 국립문화재연구소, 『開城 高麗宮城 試掘調査報告書』,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9.

113) 노명호,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 지식산업사, 2012.

114) 한기문,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2008.

었던 彌勒寺址도 조사가 되지 않았다.

현종의 부 安宗의 진전으로 출발한 玄化寺는 法相宗의 중심 사원으로 그 기능을 계속한 바 있다. 개경내 십자로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 普濟寺는 선종의 談禪會가 격년으로 열려 승과 최종고시에 응시자를 뽑았던 사원이며 禪宗의 중심 사원 기능도 하였다. 興王寺는 진전사원으로 문종의 壽陵寺院으로 건립되었지만, 華嚴宗의 중심 사원이 되었고 문종대 추진된 대장경 각판이 大藏殿에 보관된 곳이기도 하다. 義天이 주도한 敎藏 사업의 주관 부서인 敎藏司도 설치되어 교장 각판을 하여, 내외장의 각판이 보관된 사원이다. 현재는 그 사지가 대략의 배치 정도로 파악될 뿐 자세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숙종대에 착공된 天台宗의 중심 사원으로 역할을 한 國淸寺도 그 사지의 정확한 위치와 조사가 아쉽다. 이상의 4대 종단의 중심 사원 외에 군소종단인 戒律宗의 開國寺, 神印宗의 賢聖寺 등도 그 위치나 건물 등의 배치 조사가 필요하다. 계율종의 특징적 시설 戒壇이나 현성사의 文豆樓道場의 시설¹¹⁵⁾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사지 현상이 정밀 발굴되어야 한다.

1232년 江華로 천도 후에 39년간 수도의 기능을 한 江都에 조성된 왕성과¹¹⁶⁾ 사원의 조성도¹¹⁷⁾ 고고학적 조사가 되어야 한다. 『高麗史』에는 개경에 조성된 사원 시설이 그대로 강도에 재현되어¹¹⁸⁾ 국가의례와 왕실조상 숭배의례가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강도에 새로이 성립된 사원으로는 禪源寺가 있고, 普門寺, 傳燈寺 등도 보인다. 특히 선원사는 그 위치 비정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¹¹⁹⁾ 논란되는 곳을 모두

115) 신라 사천왕사의 문두루도량 시설에 대해서는 張忠植, 「新羅狼山遺蹟의 諸問題(Ⅰ) -四天王寺址를 中心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논고에서 검토된 바 있다.

116) 강화군·강화문화원,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2009 ; 이희인, 『고려 강화도성』, 해안, 2016.

117) 강화 사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는 임석규, 「강화의 사지」, 『인천문화연구』 2, 인천시립박물관, 2004 ; 김형우, 「고려시대 강화 사원」, 『국사관논총』 106, 2005.

118) 『高麗史』 卷23, 世家 高宗 21年 2月 癸未, “時雖遷都草創 然凡毬庭宮殿寺社號擬松都”.

119) 김병곤, 「강화 선원사와 신니동 가궐의 위치비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분석」, 『진단

사지 조사로 규명할 수 있다. 최우의 원당으로 조성되었고 고려말 再雕大藏經板이 소장되었다가 海印寺로 옮겨진 만큼, 대장경판 조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원이며, 최씨 정권의 불교계 통제 중심 사원이지 않은가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도 사지 조사에서 그 열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원 기능이 이어진 강화의 普門寺, 傳燈寺도 대장경을 보관한 시설이 있었다고 전해진 기록이 있어 그 건물지 조사로 실증되어야 한다.

원 간섭기의 개경 사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¹²⁰⁾ 妙蓮社와 원왕실 혹은 公主府와 관련된 사원 시설의 등장이다. 지방 사원으로 義旋의 원찰 萬義寺 등이 보인다. 이들 사원은 원으로부터 전해진 종풍과 독특한 轉經 의례가 행하여진 만큼, 그 성격을 알기 위한 사원의 구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고려의 지방 행정단위의 유물·유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원 분포 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¹²¹⁾ 지방도시의 治所를 중심으로 읍내를 구성한 범위 안에 사원이 존재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조선초 실록 기사에서 ‘各官 邑內 資福寺’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곳은 산수명처의 사원으로 대체 지정하는데 88사의 명단이 보인다. 이미 寺院田 屬公이 시작되고 도심의 사원은 사족에 의해 폐사된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불교계와 당시 관행이 바뀐 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시기로 소급하여 문헌 자료와 사지 추정지를 연결하여 보면 자복사가 각 행정단위 읍내에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²⁾ 각 행정단위 곧 주현, 속현, 그리고 부곡지역 등의 치소 가까운 읍내의 사원지에 전면적 사지 조사를 통해 실증할 수 있다. 자복사는 각 행정단위에 모두 지정되어 지방사회까지 확대된 국가

학보』 104, 2007; 채상식, 「강화 선원사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20)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사원의 불교사적 고찰-』, 일조각, 2012.

121) 국립청주박물관, 『중원의 고려 사찰』, 2018.

122) 자복사에 대한 종합적 서술은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양상」, 『民族文化論叢』 49, 2011 참조.

불교의례의 실현 장소였다. 자복사는 향촌사회의 邑司와 함께하여 敎俗社會의 성격을 보여준다.

자복사는 치소와 가까운 읍내에 있어 지방 축제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이에 따른 물품교역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지방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또 읍내를 방문하는 승려, 상인, 관리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기능도 하였다. 자복사는 사원으로서 장엄 곧 당간, 탑, 전각, 불상 등을 갖추어 읍내의 중심시설을 형성하였고 사방의 도로망과 연결되는 읍내를 둘러싼 지역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읍내를 사방에서 위호하는 형태로 존재하여 도시를 장엄하였다.

자복사의 존재는 고려 사원편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문헌 자료의 인멸과 지방 도시의 고려 이래로 불교 이념이 배척된 조선시기를 거쳐 근대화로 개발된 도시의 형성 등의 과정이 거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자복사의 사지는 보존되지 못한 예가 대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사원 표시인 幢竿은 도심에서도 잘 남아 있어 사지의 증거가 된다. 당간은 조선시기에 풍수 관념하에 도시 지세의 결함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불교 사원의 당간으로 보지 않고 ‘石檣[돌뿔대]’, ‘鎮基石’ 등으로 지칭하면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석장으로 정리되어 있고, 자복사는 읍내에 院으로 그 기능이 정리되어 驛院조에 남은 예도 많다. 그 밖에 지방지 고적조, 고지도, 개인 문집 등의 자료를 단서로 사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들 도시의 사지 자료는 자복사의 존재를 유적으로 실증할 수 있다.

고려시기 사원은 교통기능이 있었다.¹²³⁾ 수도와 지방 도심 이외의 교통로상의 사원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육로, 수로, 해로 등의 요지에 들어선 사원들은 그러한 기능을 하였다. 고려 당대에 살았던 崔瀟, 李穡 등은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에 탐묘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한 것이나

123) 李炳熙, 「高麗時期 院의 造成과 機能」, 『靑藍史學』 2, 1998 ; 李炳熙, 「高麗時期 僧侶와 말[馬]」, 『韓國史論』 41·42, 1999 ; 한기문, 「고려시대 寺院의 정기 行事와 交易場」, 『大丘史學』 100, 2010.

“사원이 민가와 섞여 있고 내 옆과 산곡에는 사원이 아닌 곳이 없다”라 표현하였다. 황해도와 평안도 경계선에 있는 慈悲嶺의 羅漢堂, 상주와 충주 사이의 하늘재의 大院寺,¹²⁴⁾ 직산현 교통 요지의 弘慶寺,¹²⁵⁾ 개령에서 동남방으로 가는 길목의 枋州 惠蔭寺¹²⁶⁾ 등은 육상 교통 기능의 대표적 사원들이다. 이들 사원 중에서 대원사에는 ‘彌勒院’이라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발굴되었고, 홍경사에 ‘廣緣通化院’이라는 숙박시설이 있었음은 홍경사비에서 확인된다. 혜음사 역시 ‘惠蔭院’이라는 문자와가 발견되어 숙박시설인 원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고 고급 석재를 사용한 후원 시설 등으로 보아 行宮의 기능도 하였다.¹²⁷⁾ 숙박시설인 원은 그 사원에 딸린 경우도 있지만 본사에서 멀리 요지에 설치된 屬院의 형태로 있는 예천 龍門寺 속원 頭川院도 있었다. 사원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립된 犬灘院도 있었다. 기존 역의 시설을 보완하였다. 都山寺는 금강산의 산내 사원들의 생필품 교역의 중심지였다.

수로의 경우 임진강 가의 자제사의 果橋院, 벽란강 가의 普達院, 서경대동강 가의 永明寺, 여주 남한강 가의 神勒寺, 선산 낙동강 가의 元興寺 등은 나루와 수로 상의 험지 곧 여울이 있어서 수로 교통의 어려움이 있던 곳으로 안녕 기원과 중간 기착 등의 기능이 필요로 한 곳이었다. 남한강을 따라가는 수로 상의 사원들이 교통기능을 한 것으로 주목하였다.¹²⁸⁾

연안 해로 상에도 사원들이 교통의 안녕을 기원하고 기착지로서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흑산도의 無心禪院, 완도의 法華寺, 태안 지령산 安

124) 청주대학교박물관, 『중원미륵리사지 5차발굴조사보고서 대원사지 미륵대원지』, 1993.

125) 成歡文化院, 『奉先弘慶寺址 學術調查報告書』, 1996.

1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枋주시, 『枋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2003.

127)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고려행궁 혜음원』, 2015.

128) 崔永俊,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의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 정진호, 「南漢江 流域의 寺刹 立地와 配置에 대한 研究－高麗時代의 寺刹을 中心으로－」, 서울대 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2000 ; 김혜완, 「나말러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波寺, 군산도 資福寺, 자연도 濟物寺 등이 그러하다. 1123년 徐兢 등이 포함된 남송 사절단이 항주에서 고려로 온 고려 연안 항로 상에 위치한다.¹²⁹⁾

근대사회 도로와 철도가 발달하면서 전통시기 육로, 수로, 연안 해로 등의 교통로는 거의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 교통기능을 하던 사원도 사지로 변하였다. 특히 연안 해로상 사원들은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조선 초에는 폐사되었음이 실록 기사에서 알 수 있다. 교통망의 복원과 사원의 상업적 기능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사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關防과 사원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신라시기 四天王寺에서 문두루법을 시행하여 대외 침략에 대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感恩寺도 동해구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관방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¹³⁰⁾ 고려에서도 문종 28년에 사천왕사에서 문두루도량을 27일간 설행 한 적이 있는데,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한 지역민의 위무차원이었다.¹³¹⁾ 예종 2년 尹瓘이 여진을 몰아내면서 축성한 英州 城中에 護國仁王寺, 鎮東普濟寺 등 두 사원을 건립하였다.¹³²⁾ 예종 3년에는 西京 興福寺, 永明寺, 長慶寺, 金剛寺 등에서 문두루도량을 설행하였다. 東界의 永興 大博山에 있는 鎮靜寺에서 문두루도량을 설행하였다. 『고려사』에 보이는 이러한 기사를 통해 관방 사원의 범주가 설정된다. 병란의 충격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의례 주관 사원과 실제 전략 요충지에 함께하는 사원 등으로 분포되었을 것이다. 이들 사원의 분포와 특징도 사지 조사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고승들의 승려대회지, 수행지, 유력지, 下山所 등의 사원은 사상의 발상지·구심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들 사원도 법등을 잇지 못한 경우 폐사

129) 문경호, 「고려도경을 통해 본 군산도와 군산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 한기문, 「고려시대 해로 사원과 해양불교신앙」, 『역사교육논집』 79, 2022.

130) 신라 중대 사원의 군사적 성격과 신인종과 관계에 대해서는 문명대, 「新羅 神印宗의 研究-新羅密敎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1976 참조.

131) 한기문, 「고려시대 개경 현성사의 창건과 신인종」, 『역사교육논집』 26, 2001.

132) 『高麗史節要』 卷7, 睿宗 2年 12月.

지로 남아 있다. 고려시기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僧侶大會는 많은 승려가 수일에 걸쳐 숙식하면서 불교 교리를 토론하는 모임이다. 여기에 세속인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개경 普濟寺에서는 3년에 한번 談禪大會를 열었고, 玄化寺에서는 매년 두 번 법회를 열었다. 사례가 알려지지 않지만, 화엄종, 천태종에서도 정기 승려대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 사원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戒膺이 태백산에 覺華寺를 창건하고 사방학자가 폭주하여 날마다 천명이 모이는 ‘法海龍門’으로 발전하였고, 寥一이 고려 盤龍寺에서 ‘華嚴結社’를 주도한 적이 있고, 大孤가 고성 水嶺寺에서도 화엄결사를 열었다. 유가종에서는 津億이 지리산 五臺寺를 중수하여 ‘水精社’를 건설하여 여기에 고승과 세속인으로 입사한 자가 3천명이나 되었다. 천태종에서도 공덕산 東白蓮社가 성립되어 고려말까지 지속되었다.¹³³⁾ 선종에서도 조응이 주관한 금주 安國寺, 龍門寺 담선회가 있고, 일연이 주관한 麟角寺 九山門都會도¹³⁴⁾ 있었다. 이들 사원은 불교 사상운동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고려 역대 국사·왕사로서 은퇴사찰이며 추모사원이 되는 下山所¹³⁵⁾ 역시 고승비와 승탑이 세워지고 국왕의 지원이 있으므로 그 역사성과 그 법손에 미치는 종단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이들 사원은 발견된 고승비 숫자만큼만 알려졌으므로 사실은 더 많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거사나 고승들의 수행과 유력지 사원도 의미가 있다. 예컨대 李資玄이 수행한 춘천 文殊院,¹³⁶⁾ 知訥의 昌平 淸源寺, 下柯山 普門寺, 公山 居祖社,¹³⁷⁾ 智異山 上無住庵, 松廣山 吉祥寺 등을 꼽을 수 있다. 法華信仰의 순례지가 된 大乘寺,¹³⁸⁾ 백화도량 洛山寺, 法起道場인¹³⁹⁾

133) 한기문, 「尙州 功德山 白蓮寺址 沿革과 現況」, 『尙州文化研究』 9, 1999.

134) 한기문, 「고려 후기 일연 주관 인각사 구산문도회의 성격」,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135) 한기문, 「高麗 歷代 國師·王師의 下山所의 存在樣相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16, 1991.

136) 홍성익, 「春川 淸平寺 伽藍配置의 綜合的 檢討」, 『江原史學』 19·20, 2004.

13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永川 銀海寺 居祖庵』, 2007.

138) 문경시, 『사불산 대승사』, 경일, 2010.

금강산 일대 사원들의 당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사지, 사역 조사가 필요하다. 명산들에는 다양한 종파의 사원이 들어서면서 사상성과 신앙성을 높였다. 명산별로 사원의 분포 양상의 해명에도 사지가 기초자료로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사지 자료를 통한 고려시기 사원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원 자체의 구조적 종파별 혹은 유형별 사원의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사지 자료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려 편제를 개경사원과 그 일대 사원, 그리고 지방 각 행정단위의 읍내 자복사를 중심으로 실증하기 위한 사지 자료의 축적과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방과 교통로에서의 사원의 역할과 구조의 특징을 밝히는데도 사지가 그 열쇠가 된다. 고승들의 수행, 유력, 하산지, 승려대회, 신앙 순례지 등의 사상성을 고양한 현장의 자연경관과 시설 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사지 자료가 그 근거가 될 것이다.

V. 맺음말

고려 사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문헌과 관련하여 사지 자료의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사지가 발생하는 배경과 그 정리 과정을 개관하고, 사지 자료로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사지 자료의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원의 구성 특징과 편제 복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신라시기와 고려시기에 성립된 사원은 자연적 쇠락과 민란, 외침에 따라 사지가 발생하지만, 사지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는 계기는 조선초 사원전의 속공과 사원의 공적 축소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 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조에서 다수 정리된 사지가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여지도서』, 『읍지』, 고지도 등에서도 정리하였고,

139) 魯英이 그린 그림에는 고려 태조가 담무갈보살에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 고려 태조의 금강산 신앙을 구체화하였다. 문명대, 「노영필 아미타구존도 뒷면 불화의 재검토-고려 태조의 금강산배점 담무갈(법기)보살 배례도」, 『고문화』 18, 1980 참조.

개인의 유록 등에서 고찰되기도 하였다. 일제시기 전국 행정단위별로 사지를 간략히 소개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성립후 문공부에서,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체계적 정리가 추진 중이다.

사지의 사명과 위치, 그리고 이에 관한 문헌적 뒷받침에 따른 존속 연대 등이 확인되어야 자료 가치가 있다. 사지의 공간적 범위가 개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고고미술사학적 자료 가치가 확보될 수 있다. 사원 역사 연구에 필요한 ‘사지 자료’가 될 것이다.

고려 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과 잔존 고려 사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사지 자료는 고려 사원 자체의 구조적 종파별 혹은 유형별 사원의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고, 고려 사원 분포와 편제를 개경사원과 그 일대 사원, 그리고 지방 각 행정단위의 읍내 자복사를 중심으로 실증하며, 육로·수로·연안해로 등 교통로에서의 사원의 역할과 구조의 특징을 밝히고, 관방관련 사원의 특징, 고승들의 수행·유력·하산지·승려대회·신앙 순례지 등의 사상성을 고양한 현장의 특징과 사상을 파악하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려 불교관련 문헌, 유적 자료 공히 조선시기에 척불의 논리에 따라 크게 인멸되었다. 따라서 문헌자료와 사지의 유적 자료를 함께한 연구가 심화되기를 전망한다. 사지연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크다. 불교사, 고고미술사, 고건축학 전문가가 사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학제간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지학’으로 전문 학문 분야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곽승훈 편저, 『고려시대 전적자료집성』, 혜안, 2021.
-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上·下,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慶北大學校 出版部, 『東興備攷』, 1998.
-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2015.
- 국립중앙박물관, 『불국사 석가탑 유물2-중수문서』, 2009.
-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1999.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녀사 금속공예』 I·II·III, 2014~2015.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佛敎寺院址』 上·下, 1997·1998.
- 亞細亞文化社 影印, 『曹溪山松廣寺史庫』, 1983.
- 이남규 외, 『고려시대 역연대 자료집』, 학연문화사, 2015.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신라 금석문 탁본전 돌에 새겨진 신라인의 삶』, 2008.
- 신대현 번역 주석, 『산중일기』, 혜안, 2005.
-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2017.
- 齋藤忠 編著, 『高麗寺院史料集成』, 大正大學綜合佛敎研究所, 東京 第一書房, 1997.
- 朝鮮總督府製作, 『一万分一朝鮮地形圖集成』, 景仁文化社 影印.
-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 朝鮮總督府 編, 『佛國寺와石窟庵』, 1938.
- 강원문화재연구소, 『三陟 興田里寺址 地表調査 및 三層石塔材 實測報告書』, 2003.
- 강원문화재연구원, 『원주 흥법사지 문화재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 강원문화재연구원, 『원주 법천사III』, 2017.
- 경기도박물관, 『봉업사』, 2002.
-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여주군, 『고달사지 IV』, 2016.
- 경상북도·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화산 인각사·사역확인 시굴조사보고서』, 1999.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永川 銀海寺 居祖庵』, 2007.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안동 조탑리사지』,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과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1993.
- 국립청주박물관, 『증원의 고려 사찰』, 2018.

- 국립부여박물관, 『개태사 태평성대 고려를 열다』, 2018.
- 군위군·경북대박물관, 『화산 인각사』, 1993.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2003.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고려행궁 혜음원』, 2015.
- 문화유산연구원, 『월남사 I~V』, 2015~2019.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2000.
- 成歡文化院, 『奉先弘慶寺址 學術調查報告書』, 1996.
-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1.
- 원주시, 『홍법사지 석물실측 및 지표조사보고서』, 2000.
- 예천군·한국문화연구원, 『예천 개심사지』, 2021.
- 청주대학교박물관, 『중원미륵리사지 5차발굴조사보고서 대원사지 미륵대원지』, 1993.
- 충주시·충청박물관, 『충주 승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 한림대학교박물관, 『거둔사지』, 2000.
- 한성백제박물관, 『영국사와 도봉서원』, 2018.
- 고유섭, 『송도의 고적』, 박문출판사, 1946.
- 김창현,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신서원, 2011.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남동신 책임편집,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0.
- 노명호,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 지식산업사, 2012.
-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집문당, 2004.
- 이병희,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사원의 불교사적 고찰』, 일조각, 2012.
- 윤창화,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민족사, 2017.
- 조원창, 『고려사지와 건축고고』, 서경문화사, 2016.
-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 허홍식,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집문당, 2004.

- 김봉열·박종진, 「고려 가람의 구성형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통권26호, 1989.
- 김수태, 「고려시대 청주 사뇌사의 성격-미륵신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5, 2021.
- 김혜완,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 김창현, 「고려 현화사비 분석」, 『목간과 문자』 9, 2012.
- 남권희, 『東輿備考』의 寺刹기록 연구, 『嶺南學』 2, 1998.
- 남동신, 『金石清玩』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 류형균, 「高麗 木塔址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문경호, 「고려도경을 통해 본 군산도와 군산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 문명대, 「노영필 아미타구존도 뒷면 불화의 재검토-고려 태조의 금강산배점 담무갈(법기)보살 배례도」, 『고문화』 18, 1980.
- 문명대,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教美術史觀」, 『강좌미술사』 1, 1988.
- 박찬문,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 소개」, 『목간과 문자』 18, 2017.
- 소재구,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안병우, 「중세고고학의 발전과 고려사 연구」, 『역사비평』 6, 2003.
- 양정석, 「사지고고학서설」, 『불교사연구』 4·5, 2004
- 이강근, 「17세기 불전의 재건축」, 『미술사학연구』 208, 1995.
- 이경미, 「高麗 朝鮮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變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李炳熙, 「朝鮮時期 寺刹의 數的 推移」, 『歷史教育』 61, 1997.
- 이승연,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법당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李鍾恒, 「傳 仁興寺址 三層石塔 移基에 關한 報告」, 『慶北大論文集-高秉幹博士頌壽紀念論叢』, 4, 1960.
- 임석규, 「강화의 사지」, 『인천문화연구』 2, 인천시립박물관, 2004.
- 조명제, 「고려시대 기비사의 건립과 기능」, 『향도부산』 43, 2021.
- 최병헌, 「고려중기 현화사의 창건과 법상종의 융성」,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 최인선, 「한국 철불 연구」,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 최연식, 「고려 사원형지안의 복원과 선종사원 공간구성 검토」, 『불교연구』 38, 2013.
- 최연식, 「홍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홍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목간과 문자』 20, 2018.
- 최연식,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28, 2020.
- 최태선, 「신라 고려전기 가람의 조영 연구-경전의범과 공간조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한기문, 「尙州 功德山 白蓮寺址 沿革과 現況」, 『尙州文化研究』 9, 1999.
- 한기문, 「高麗時期 善山 元興寺의 立地와 役割-‘元興寺’ 銘文瓦의 發見-」, 『文化史學』 26, 2006.
- 한기문,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2008.
- 한기문, 「고려시대 寺院의 정기 行事와 交易場」, 『大丘史學』 100, 2010.
-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양상」, 『民族文化論叢』 49, 2011.
- 한기문,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8, 2014.
- 한기문, 「고려시기 상주(尙州) 봉두사(鳳頭寺)의 위치와 기능」, 『복원사림』 32, 2014.
- 한기문, 「고려시대 해로 사원과 해양불교신앙」, 『역사교육논집』 79, 2022.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 대불교정책」, 『진단학보』 25·26·27 합집, 1964.
- 황수영, 「高麗 興王寺址의 調査」, 『白性郁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957.
- 홍대한,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홍병화·김성우, 「희양산 봉암사 극락전의 연구」, 『건축사연구』 제16권5호(통권54호), 2007.
- 홍성익, 「春川 淸平寺 伽藍配置의 綜合的 檢討」, 『江原史學』 19·20, 2004.
- 水谷昌義編譯, 「高麗仏日寺の調査研究-近年の共和國の研究報告から」, 『朝鮮學報』 113, 1984.

Abstract

Understanding Goryeoan Temples with Temple-Site Analysis

Han, Ki-moon

To understand Goryeoan temples systematically I reviewed the significance of temple-site data with the literature.

Temples in Shilla and Goryeo remained as many sites in quantity for especially the reduction by the official redemption of temple-farms in early Choseun among many factors. The site-data were written in part on 「Gojeok」 item in 『Sinjeongdongkugyeujiseungram』. But they began to explore logically in the modern era.

To find the sites` name and position and duration is the clue to restore temple-history. To know their names can be through the roof-tile-inscription and the place-name data.

In the absent presence of the reasonable records and the existent temples in Goryeo, the site-data can be the new alternative

1) to study its sectal and patternal structure and the periodical character itself,

2) to find their distribution and organization Gaigyeong-areal temples and local Jaboksa,

3) to define their structural traits and roles on transportation,

4) to reflect their military characteristic,

5) to see the religious fields of the grand masters` performance and pilgrim and their thoughts.

keywords :

Goryeoan temple, temple-site-data,
『Sinjeongdongkugyeujiseungram』, official redemption,
roof-tile-inscription.

